

# 정현, 두달반만 컴백전 승리... 8강행

남자프로테니스 애들랜드 오픈

테일러 프리츠에 2-0 승리  
8강서 라이언 해리스와 맞붙

한국 테니스의 간판스타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23위)이 2개월 반 만에 치른 복귀전에서 승리했다.

정현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들랜드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B&T 애들랜드 오픈 단식 2회전에서 세계랭킹 65위 테일러 프리츠(21·미국)를 2-0(6-4 7-6(7-5))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5월8일 ATP 투어 마드리드 오픈 1회전에서 탈락한 정현은 발목 부상 때문에 이후 투어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메이저대회인 프랑스오픈, 윌버던도 건너뛰었다.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 온 정현은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을 앞두고 이번 대회를 복귀전으로 삼았다. 3번 시드를 받고 출전한 정현은 1회전을 부진승으로 통과해 이날 경기를 치렀다.

1세트 게임 스코어 4-4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프리츠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며 기세를 살린 정현은 결국 1세트를 가져왔다.

정현은 2세트에서 프리츠와 서로 한 번씩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며 팽팽히 맞섰고, 결국 타이브레이크에 돌입했다. 타이브레이크에서도 프리츠와 5-5로 팽팽히 맞선 정현은 내리 두 포인트를 따내 1시간32



정현

분에 걸친 승부를 승리로 장식했다.

정현이 투어 대회 8강에 오른 것은 5월 초 BMW 오픈 4강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올 시즌 10번째 대회에 출전한 정현은 이 중 8개 대회에서 8강 이상의 성적을 냈다.

정현은 8강에서 세계랭킹 53위 라이언 해리스(26·미국)과 맞붙는다. 정현과 해

리스는 투어급 대회에서 맞대결한 적이 없다. 2015년 켈린저 대회에서 한 차례 맞붙었는데 당시 정현은 1-2(7-6(7-5) 1-6 1-6)로 졌다.

해리스는 지난해 세계랭킹 40위에 오른 것이 개인 최고 순위인 선수다. 투어 대회에서는 개인 통산 한 차례 우승을 맛봤다. 정현은 경기 후 "두 달 반 만에 치른 경

기에서 승리해 기쁘다. 약간 더웠지만, 경기와 모든 포인트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지난 두 달 반 동안 훈련을 많이 했다. 몸 상태는 좋다"고 밝혔다.

"2세트에서 끝낼 기회가 많았는데 서브가 좋은 프리츠가 계속 에이스를 뽑아냈다. 2세트에서 힘든 경기를 했다"고 덧붙혔다. /뉴시스

# 한국 남자펜싱 사브르 단체전 2연패 달성... 김정환 2관왕

여자 에페, 세계선수권 단체전서 첫 은메달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을 제패하며 다시 한번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다.

김정환, 구본길(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국군체육부대), 오상욱(대전대)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5일 중국 우시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45-39로 꺾고 정상에 등극했다.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지난 대회에서 헝가리를 누르고 사상 처음으로 남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달성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최정상의 기량을 뽐내며 2연패를 달성했다.

대표팀 맏형 김정환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 우승까지 차지하며 대회 2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여자 에페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최인정, 신아람(이상 계통시청), 강영미(광주 서구청), 이혜인(강원도청)으로 구성된 여자 에페 대표팀은 준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1위 중국을 25-21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여자 에페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미국에 접전 끝에 17-18로 아쉽게 패했다. 이 대회 전까지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의 최고 성적은 동메달이었다.

단체전 4개 종목을 남긴 상황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기록하며 세계선수권대회 최고 성적을 넘어섰다. 이전까지 한국의 최고 성적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총합 3위)였다. /뉴시스

# 아드리아노 결승골... 전북현대, FA컵 16강 진출

전북현대대는 아드리아노의 결승골로 부산교통공사를 제압하고 FA컵 16강전에 진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현대대는 지난 25일 오후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FA컵 32강전에서 내셔널리그 소속인 부산교통공사를 3-1로 눌렀다. 선취골은 전반 5분 만에 터졌다. 전북 티아고는 박원재가 올려준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하며 득점을 기록했다. 티아고는 득점 이후 곧바로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공은 옆그물을 맞혔다.



부산은 반격을 펼쳐며 전북을 위협했다. 부산은 전반 39분 코너킥 상황에서 정서운이 헤딩슛을 기록했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전북은 후반 로페즈와 임선영을 빼고 이동국과 김신욱을 투입했다.

전북은 후반 17분 이동국의 패스를 받은 아드리아노가 가볍게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부산은 후반 22분 안수민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추격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후반 24분 전북 정혁에게 쇄기골을 허용해 기세가 꺾였다.

전북은 이후에도 추가골을 노렸지만 최진백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뉴시스

# 분데스리가 진출 이재성 "K리그 자존심 걸고 도전"

홀슈타인 킬에 이적 앞두고

"K리그 자존심을 걸고 도전하겠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리그 홀슈타인 킬로 등지를 옮기는 이재성이 이적을 앞두고 각오를 밝혔다.

이재성은 26일 전북 현대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이재성은 "늘 마음속에 해외 진출의 꿈을 품고 있었다"라며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시점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 꿈과 축구를 해외에서 펼쳐보고 싶었고 그곳에서 뛰는 선수들을 상대로 내 축구 실력을 테스트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전북에서 4년6개월간 선수 생활을 한 이재성

은 "팬들이 보내준 응원과 성원이 힘이 됐다. 행복함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재성은 또 독일 구단으로의 이적에 대해 "내 도전이 아니라 모두의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재성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K리그의 자존심, 전북현대의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고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홀슈타인 킬은 1부리그 팀은 아니지만 2부리그 상위권으로 승격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다. 이재성을 바로 주전급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약에는 150만 유로의 이적료와는 별도로 홀슈타인 킬이 1부리그로 승격하거나 이재성이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전북이 별도의 추가 금액을 받는 옵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 무주 2018 남대천 물축제

불조음부주! 물만남물축제!

2018. 07. 27(금) - 07. 29(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일원

주최·주관 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축제일정		요일별	행사명	장소
일시	시간			
7월 27일 금요일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16:00		무주군 동아리공연	메인무대
	18:40		래시가드 패션쇼	
	19:00		EDM 파티	
7월 28일 토요일	20:00		영화상영	메인무대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16:00		전국퍼포먼스댄스대회	
	18:00		식전공연	
	19:00		개막식	
	20:00		축하공연 [홍진영]	
7월 29일 일요일	20:40		불꽃놀이	메인무대
	20:45		EDM 파티	
	16:00		전국배틀댄스대회	
	20:00		영화상영	